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 방안 모색

의정 토론회

2023. 4. 25. 화
14:00 ~ 16:10
예산 해봄센터 회의실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좌장 방한일(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 전통예술인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하여
- 이명재(예산시우회 회장)

토론

김규리(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사범)

김연소(내포제시조예능보유자, 무형문화재)

이규환(내포제시조 충남통합시우회 회장)

강남식(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이성일(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충청남도의회
CHUNGCHEONGNAM-DO COUNCIL

-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계획

❖ 충청지역의 전통 시조인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하여
도민, 공무원, 충남 시조인들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I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3. 4. 25.(화), 14:00 ~ 16:10
- 장 소 : 예산 해봄센터 회의실 (충남 예산군 예산읍 소재)
- 주 제 : 내포제시조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주 최 : 충청남도의회(복지환경위원회)
- 참석인원 : 50여명(의원, 관계전문가 및 공무원 등)

〈토론 참여자〉

좌 장 ■ 방한일(충청남도의회 의원)

발제자 ■ 이명재(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회장)

**토론자
(5명)** ■ 김규리(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사범)
■ 김연소(내포제시조예능보유자, 무형문화재)
■ 이규환(내포제시조 충남통합시우회 회장)
■ 강남식(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 이성일(충청남도 문화정책과장)

※ 사회 :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정윤탐)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및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II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 개 회 식 〉		
14:00~14:05	05'	개 회 및 국 민 의 례
14:05~14:10	05'	내 빈 소 개 및 개 회 사
〈 토 론 회 〉 ※ 진행 : 방한일 의원		
14:10~14:50	40'	주 제 발 표
14:50~14:55	05'	자 리 정 리
14:55~15:45	50'	지 정 토 론
15:45~15:55	10'	자 유 토 론
15:55~16:05	10'	청 중 토 론
16:05~16:10	05'	정 리 및 폐 회

III 세부 진행계획

1 개회 및 국민의례 : 14:00~14:05(05')

- 사 회 자 : 복지환경위원회 정윤택 전문위원
- 국민의례 : 국기에 대한 경례 (녹음반주)

2 내빈소개, 개회사 : 14:05~14:1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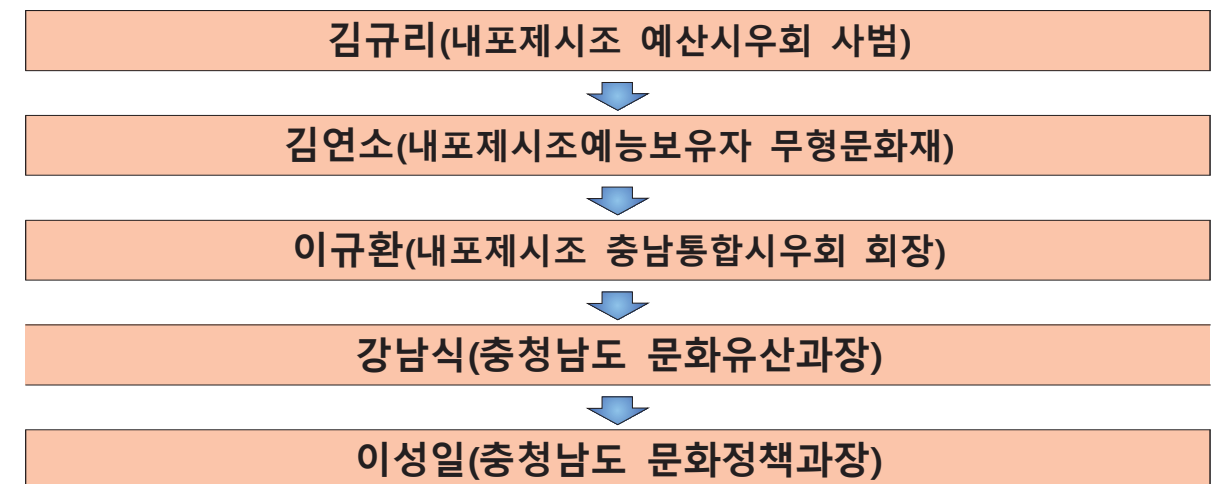
- 주요 내빈소개(사회자)
 - 참석 도의원, 의회 및 집행부 간부, 기타 내빈 등 소개
- 개회사(방한일 의원)

3 주제 발표 : 14:10~14:50(40')

- 이명재 내포제시조보존회 회장
 - 전통예술인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하여

4 지정 토론 : 14:55~15:45(50')

- 발표 순서 ※ 토론자 1명당 10분 정도 발표



※ 추진과정에서 토론자 순서는 변경될 수 있음.

5 자유 토론 : 15:45~15:55(10')

- 발제자 및 토론자 자유토론
 - ⇒ 패널 상호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

6 청중 토론 : 15:55~16:05(10')

- 토론 주제에 대한 방청객 청중 토론
 - ⇒ 질문자 마이크 제공

7 정리 및 폐회: 16:05~16:10(5')

- 진행자 마무리 발언 후 폐회

목 차

주제발표

- 07 전통예술인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대하여
이명재(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회장)

지정토론

- 17 지역별 시조의 특성과 내포제시조의 위기
김 규 리(내포제시조 예산군시우회 사범)
- 27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시조
김 연 소(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7호)
- 33 시조동호인, 후배 시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규 환(충남통합시우회 회장)
- 39 내포제시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강남식(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과장)
- 47 이성일(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과장)

주제발표

전통예술인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 발전에 대하여

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회장 이명재

전통예술인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하여

발제: 이명재(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회장)

1. 시조 개론 : 시조의 연원과 시조의 전통성

- 시조의 연원과 의미 : 13세기~14세기의 시조
- 한글의 전파와 국문학의 창조 : 한글로 부른 양반의 격조 높은 노래, 15~16세기의 시조
- 국민의 애환을 격조 있게 담아낸 정서와 감성
: 국민가요 : 17~19세기의 시조
- 미래 지향적 가치를 지닌 전통문화·예술 : 20~21세기의 시조

2. 시조의 예술성과 가치

- 고려시대 ~ 조선초기
: 국문학 가사로 이어져 온 격조 높은 노래. 주로 우국과 충절의 의미를 담은 노래.
- 조선 전기
: 한글 보급과 국문학 발전에 기여한 노래. 황진이, 송강의 시조.
- 조선 후기
: 한글의 보급으로 양반과 일반 평민들이 함께 즐긴 시이면서 노래.
- 시조의 뜻
: <시절가조>의 준말로, 조선시대 후기를 대표하는, 국민가요라는 뜻.

3. 20세기 시조의 변화

: 조선의 쇄망과 함께 전통 시가가 크게 변화

○ 정가와 잡가의 구분

● 정가

: 순수한 전통성을 가진 바른 노래라는 뜻으로, <시조>, <가사>, <가곡>.

● 잡가

: 19세기 후반에 발생하여 20세기 초까지 이어진 노래. 정가인 <시조, 가사, 가곡>과 백성들이 부르는 <판소리, 민요>의 특성을 버무려 만든 노래. 여러 가지 요소를 섞어 만든 노래. 현재 민요라 불리는 대부분의 노래가 이에 해당.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부터 불려온 <전통민요>와 구분할 땐 <신민요>라고 부름

○ 서울로 통합되는 전통 노래

- 19세기 말~20세기 초, 외래문물 유입, 정치·사회적 구조 변화에 따라 남사당과 예술인들의 터전 고갈.
- 갈 곳 잃은 전통 문화예술인들은 전통의 노래에서 대중성과 재미 요소를 섞은 <잡가>를 만들어 계승함.
- 서울 중심의 <경제>가 문화예술 권력을 독점
: 공연이 가능한 곳인 서울 주변으로 전통예술인들 집결.

○ 중앙집권적 위세의 <경제> 시조

※ 지역성에 따른 시조의 갈래 : 경제, 내포제, 완제, 영제.

● <경제시조>의 확장

: 일제강점기 이후의 근대화(도시화/산업화)로 인한 정치문화예술의 집중성.

⇒ 대한시조회-석암제 시조

- 石菴 정경태의 창법을 이은 시조. 석암 정경태가 여러 형태로 존립하는 시조창법을 통일하고자 독자적인 방식으로 변개하여 만든 새로운 시조창.
- 석암제 시조창은 대한시조회의 시조경창대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전파됨.
- 옛 시조창을 변형시킨 석암제는 웅심하고 장중하며 점잖은 옛 창법에서 벗어나 속요화(俗謠化)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나, 배우기도 쉽고 듣기도 좋다는 긍정적인 평가.
- 석암제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현재 석암제 시조를 배워 부르는 전문음악인과 일반인이 크게 늘어나면서 경제와 향제(내포제, 영제, 완제)의 구별은 물론, 시조창의 지역적 차이가 사라지면서 향제의 쇠락을 재촉.

○ 지역별 시조의 보존 및 계승·발전 양상

● 경제시조

: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으며, 초중고 교과서, 대학 국학과 의 중심을 차지. <대한시조회>가 경제와 향제를 통합 변형한 <석암제>를 보급하고 있음.

● 완제시조

: 전라도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지역민의 호응으로 전통 향
제 시조의 면모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음.

- 영제시조

: 지원이 미흡하고, 지역민의 호응도 낮아 어려움 겪음.

- 내포제시조

: 특정한 시도지원 자원이 없고, 지역민의 호응도 낮아 어
려움 겪음.

4. 내포제 시조의 특징과 전개

○ 개념

작은 의미로는 아산만 남쪽 지역인 홍성, 예산, 당진, 서산,
태안, 아산, 청양 지역 등을 이르는 내포에서 성행한 노래란
뜻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충청지방에서 널리 불린 시조창을
의미함.

○ 내포제 시조창의 특징

- 시조창의 음계는 슬프고 처절한 느낌을 주는 3음조의 계면조와
맑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5음조의 우조로 구성됨.
- 창 의 중간에는 가락을 올리 지 않아 안정감을 유지하고
끝에는 떨어뜨려서 여운을 남기며 가성을 쓰지 않고 꾸
밈음을 사용함.
- 악기 없이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일시적 연주하기 때문에
초장과 중장 끝 장단에서 5박자가 줄어들기도 하며, 이러한
내포제 시조창의 특징은 경제나 완제, 영제와 구별되는
것임.

○ 내포제 시조창의 연원

- 고려시대 귀족층에서 불린 시조창은 조선시대에 와서 지역적
으로 조금씩 다른 창법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임.
- 역사 기록에 따르면, 조선 중종 때의 유학자이며 조선 전기
4대 명필가의 한 사람이었던 자암 김구(自庵金絳, 1488~1534)가
내포제 시조창을 크게 즐겼다는 기록이 있음. 이를 보면
16세기 초에 이미 내포제가 충청도에 정착한 것으로 보임.
- 17세 후반에서 18세 초, 한국 고유의 필체를 개발하여 <동
국진체>를 일으킨 명필가이며 유학자인 옥동 이서(玉洞李
淑, 1662~1723)는 내포제 시조창을 즐겼다고 함.
- 옥동 이서는 서울·경기도 사람이었으나 서울의 시조창이
아닌 내포제 시조창을 잘하여 특별한 인기를 얻었다고 함.
이는 내포제 시조가 충청도의 시조창에 머문 것이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에서도 인정을 받고 퍼져간 것임을 나타냄.
-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가객 장석범(張錫範), 구
연호(具然浩), 유창호(柳昶浩) 등이 내포제 시조 보존을 위해
애썼다고 전해짐.

5. 내포제시조의 보존 및 계승의 당위성

○ 국제화 시대의 한류 문화의 융성 배경

- 미국과 유럽 문화의 융성 배경
: 경제사회적 우월성 + 문화예술의 국제화
- 국제성과 고유성의 접합

- : 싸이의 강남스타일, BTS의 성공 요인(국제성+고유성)
- 한류문화의 융성 원인 : 영어권 문화적 요소에 고유성 가미.
 - ⇒ 미국과 유럽의 인정
 - 자신들의 예술적 요소만이 아닌 새로운 독특성 존재.
 - ⇒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의 환호
 - 영어권의 요소뿐만 아니라 비영어권의 고유적 특성에 환호. 비주류인 자신들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으며, 열강이 아닌 문화 융성의 가능성 발견.
- 한류 문화예술의 근간에 자리한 전통 예술
 - : 시조, 가사, 판소리, 민요의 재발견.
- 내포제시조의 보존 계승의 당위성
 - : 충청의 고유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을 통해 충청의 문화예술적 터전을 굳건히 하고, 한국문화예술의 근간이 되어 세계 속의 한류 문화를 고양할 수 있는 바탕이기 때문.

6. 충남 시군별 충남통합시우회(내포제시우회) 현황

- 내포제시조 무형문화재 현황
 - 제1대 무형문화재 : 소동규 선생
 - 제2대 무형문화재 : 김원일 선생
 - 충남 무형문화재 제17호 : 김연소 선생(아랫내포제시조)
 - 충남 무형문화재 제17-1호 : 박선웅 선생(윗내포제시조)
- 충남통합시우회(회장 이규환. 사무국장 손경호)
 - 내포제시우회의 본부로 부여군에 위치해 있으며 아래와 같이 10개 지회를 두고 있다.

- ① 부여지회 : 회장 김영숙, 사범 손경호
- ② 공주지회 : 회장(사범) 유옥자
- ③ 세종지회 : 회장 김한예. 사범 윤종석
- ④ 보령지회 : 회장/사범 조성초
- ⑤ 서천지회 : 회장 김윤중. 사범 구보경
- ⑥ 예산지회 : 회장 이명재. 사범 김규리(회숙)
- ⑦ 청양지회 : 회장/사범 김영애.
- ⑧ 천안지회 : 회장 구보경. 사범 홍나희
- ⑨ 논산지회 : 회장 임용수. 사범 윤소리
- ⑩ 홍성지회 : 임원진 없음.(비활성화)

- 전국내포제시조경창대회: 충청남도 시·군 지회에서는 매년 또는 격년으로 전국내포제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해 왔으나, 작년도에는 예산 부족으로 6개 지회에서만 대회가 개최됨.

7. 내포제시조 보존 및 계승발전을 위한 방안

- 충청남도의 전향적 지원 필요
- 지역문화예술 및 내포제시조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내포제시조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지역민 호응)
- 내포제시조인들의 분발 : 후배 양성과 공연에 진력해야.

*** 【내포제시조에 대한 정책 지원 ▶ 홍보 및 교육 ▶ 시조인들의 노력 ▶ 모니터링 및 기록연구】가 선순환되는 구조 만들어야.**

지정토론1

지역별 시조의 특성과 내포제시조의 위기

내포제시조 예산시우회
사범 김규리

지역별 시조의 특성과 내포제시조의 위기

김 규 리(내포제시조 예산군시우회 사범)

1. 지역별 시조의 특성

조선조 전기부터 불리던 전문가의 노래가 가곡이라면, 이를 일반인들이 부르기 쉽도록 고쳐 만든 노래가 곧 시조창입니다.

시조창을 부르기 시작한 시기를 학계에서는 대략 18세기 영조 무렵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예지》를 비롯한 시조창의 악보는 19세기 초 순조 무렵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내포제시조는 충남 내포 지방의 시조창입니다. 예산, 홍성, 당진, 서산, 태안 등을 내포로 부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됩니다. 시조창은 박자가 느리고 3음 중심의 계면조 음악이며 요성(搖聲)과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노래입니다.

시조는 발달 되어 온 그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서울·경기 지방의 경제, 충청도의 내포제, 전라도의 완제, 경상도의 영제시조로 구분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각 지방의 시조는 형식이나 창법에서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겠으나, 자세히 들어가면 서로 다른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분적이기는 하나,

첫째로, 가락의 진행을 다르게 부르는 부분이 있고

둘째로, 가사, 곧 노랫말을 붙이는 박자라든가 그 위치가 서로 다르며

셋째로, 요성(搖聲), 곧 떠는소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시김새의 형태가 비교됩니다.

넷째로, 창법이나 발음법, 끝내는 박, 등에서 부분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마다 말이 다르듯 생활환경이나 풍속, 성격, 기호, 등이 서로 달라서 자연스럽게 토착화되어 오늘에 이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1) 경제시조

경제시조는 서울 경기 지방에서 불려온 시조로 시조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고 대다수의 노래가 정간보와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무형문화재 47호로 지정 변진심 선생의 지도하에 47호 이수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대학교 국악과나, 예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2) 영제시조

경상도 지역에서 불려지는 영제 시조는 웅장하고 씩씩한 영남인의 기상이 녹아있고 전체적으로는 평시조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뉘이로다”에서 요성으로 부르다가 직선으로 뻗을 때 쿵 찢러서 내려간다는지, ‘높다 하되’를 ‘높다 허어허되’로 마디를 준다는지, 매끄럽게 흐르지 않고

‘하늘 아래 뉘이로오, 오오다’처럼 ‘오, 오오’로 충을 주며 단락을 짓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제6호 예능 보유자였던 이기룡은 손덕겸의 제자인 김영도에게 전수받아 40여 년간 영제시조 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고 1996년에 타계하였습니다. 그의 제자 박선애(朴善愛)가 1997년 9월에 예능 보유자로 재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중들의 무관심에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월하재단의 사무국장 예찬건 선생의 영제시조 100곡을 음반에 담아내는 기업을 토해 화젯거리입니다. 현재 평시조, 사설시조, 반사설시조, 지름시조 5곡으로 총100여 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3) 완제시조

호남 지역에서 불려온 시조로 현재 전해지는 시조는 사설시조 3곡(팔만대장경, 명년삼월, 이 몸이 세상에 나서)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불리는 시조는 석암 정경태 선생께서 만드신 노래입니다. 2016년 6월 서울특별시 문화재 제47호 이영준 선생께서 보유하시다가 2022년 8월에 타계하셨습니다. 석암제는 석암 정경태 선생의 호를 따서 석암제로 분류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대한시조협회가 그 중심으로 전국규모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암제 시조는 완제의 사설시조를 그대로 부릅니다. 아무래도 정경태 선생의 고향이 전라도 부안이다 보니 그런 듯합니다.

4) 정가(가곡)

원래 시조는 정가(가곡, 가사, 시조)의 한 갈래입니다. 가사, 가곡의 악보는 정간보이며 가곡은 궁중 및 혹은 민간에서 널리 불리어 왔으며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가곡은 고려 노래인 ‘정과정’에 연원을 두고 만대엽을 조종으로 중대엽과 삭대엽을 더하여 조선 중기에 만대엽, 말기에 중대엽의 연주형식이 없어지고 삭대엽에서 초, 이, 삼삭대엽의 변주를 거듭하였습니다.

가곡은 일명 ‘만년장환지곡’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창가곡 15곡, 남창가곡 26곡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가곡은 문화재 30호로 지정되어 있고, 여창가곡 보유자는 김영기 선생, 남창가곡 보유자는 김경배 선생입니다. 2010년 세계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5) 내포제시조

내포제 시조는 3장 형식(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계는 3음조의 계면조(슬프고 처절한 느낌을 주는 음조)와 5음조의 우조(밝고 씩씩한 느낌을 주는 음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은 5박과 8박으로 구성되며, 중간에는 속소리를 쓰지 않아 안정감을 유지하고 끝에는 떨어뜨려서 여운을 남깁니다.

경제나 석암제 시조는 평시조 중장과 종장 부분에 가성을

쓰지만 내포제 시조는 가성을 쓰지 않고 초장 도입 부분에 ‘타르’라는 내포제 시조만의 특징이 들어가며, 초장 끝부분에 앞 음을 끌고 올라가지 않고 앞 음정을 그대로 끌고 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내포제 시조는 평시조, 사설시조, 남녀창 절음시조, 중허리시조, 반각시조, 엮음절음 시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포제 시조는 ‘충남 제17호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김연소 선생께서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부는 부여에 있습니다.

각 지역의 시조는 어느 지역의 시조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적 특성에 맞게 시조가 발전되어 전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조가 발전되고 계승되기 위하여는 혼자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관, 단체, 개인(대중)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류의 열풍을 타고 한국의 문화예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 분명 시조창을 들으면 한류의 대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2. 변방으로 내몰린 내포제시조

예산지방은 내포지역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내포제시조의 호응도는 변방이라 생각합니다.

충남지방에서 내포제시조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지역은

부여, 예산, 보령, 공주, 세종(조치원), 청양뿐입니다. 홍성과 서천, 논산, 천안은 예산 문제로 전국시조경창대회를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역의 시조가 오랜 기간을 거치며 명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것은 1950년대 시조 동호회가 조직되어 순천병원장 이종대 선생을 회장으로, 유환경 사범을 비롯하여 이기보, 이종훈, 김정태 선생 등이 모여 시조를 계승해 왔기 때문입니다.

1960~70년대는 해동안과 원장이었던 오도영 선생께서 회장을 맡았으며, 이후 이기봉 선생과 김정태 선생 등을 거쳐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고장의 자부심이 될 만합니다. 김정태 선생은 10년 전에 작고하셨는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후진양성에 진력하셨고, 내포제시조의 산증인으로 예산의 시조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분입니다.

저는 고 김정태 선생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산군내포제시조보존회’ 시조 사범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는 예산문화원에 시조창 교실이 개설되었습니다. 이버님과 시조동호인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5~6차례씩 모여 시조를 배우고 풍류도 즐기셨습니다. 시조인들이 넘쳐나 시조경창대회를 2박 3일에 걸쳐 한 적이 있고, 2013년에도 2일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회가 하루 만에 후다닥 끝나버립니다. 시조인들은 적어지고, 예산이 부족하여 홍보를 크게 하지 못하

고, 대회 규모를 확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시조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시조창을 많이 듣고 성장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에서도 시조창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에 대해 관심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학교에서 방과 후나 특활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조창을 배워보면 아마도 시조창이 이렇게 외면당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조를 배우고 가르칠 장소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통문화인 시조는 대중들에게 푸대접을 받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예술문화는 국가의 문화행정 지원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문화의 자산 가치는 개인보다 국가행정이 나서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통 예술인 내포제시조엔 행정지원이 참담합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시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시조를 모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시조보다는 신이 나고 따라 부르기 쉬운 서양식 가요를 따라 부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시조는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준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나마 1년에 한 번 시조 경창 대회가 열리고, 부여 본부에서 시조 강습회가 열리는 것이 그나마 다행인지도 모

룹니다.

하지만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예산은 매년 줄고 있고, 대중들의 무관심과 홍보 부족 등 그리하여 경창대회는 매년 축소되어 반쪽짜리 대회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언젠가 충남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중고제 판소리를 살리자는 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우리 고유문화유산인 내포제시조도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청의 문화유산인 내포제시조가 중고제판소리보다 앞서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포제시조가 아예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상도나 전라도 지방은 시조에 대한 관심이 무척 뜨겁습니다. 지자체와 행정기관에서 홍보를 해주고 지원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조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포제 시조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조상님들의 얼을 되새기고 충청의 정체성을 밝히는 기회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성 위에 우리 후배들이 당당한 한류의 미래를 밝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중들의 외면으로 시조가 위태위태합니다, 시조 동호인들의 열정이 부족하여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으로 반성도 하게 됩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우리 시조인들과 충청 사람 모두에게 빛이 되길 생각합니다. 자리를 마련해 주신 방한일 의원님과 충남도 관계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지정토론2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시조

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7호
김 연 소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시조

김 연 소(충청남도무형문화재 제17호)

내포제시조는 충청남도 서북부지역의 시조창입니다. 내포라고 불리는 지역은 충청도 지역에서 서산, 당진, 예산, 홍성을 중심으로 하는 곳으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적 시조창을 내포제시조라고 합니다.

내포제시조는 1982년 12월 8일에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 17호로 소동규가 지정되었고, 1990년 소동규 명인이 돌아가신 후 김원실 명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동규는 윤종선의 수제자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시조회관을 건립하고 후배양성에 진력하다 1990년 타계하셨습니다.

소동규 명인의 타계 이후 1993년 김원실 명인이 내포제시조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되어 활동해오다 2008년 9월에 별세하셨습니다.

현재 내포제시조 예능보유자인 저는 1998년 12월 29일에 예능후보자로 인정되어 내포제시조의 후계자로서 내포제시조보존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내포제시조 보급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여군 태생으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시조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 어릴때부터 시조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으며, 내포제시조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박홍남 선생님 지도로 5년 정도 국악과 풍물을 배우기도 하였으며, 소동규 선생님 아래에서 수학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내포제시조는 모두가 알다시피 그 저변이 점점 좁아지고 위축되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시대적 흐름도 있겠지만, 시조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점점 사라져가며 우리 전통문화가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포제시조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후계자의 안정적인 발굴과 지속적인 전승이 이뤄져야 합니다.

시조창은 물론 시조를 향유하는 층이 점차 폭이 좁아져 소수만이 향유하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내포제시조의 전승에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시조를 배우면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즉, 국립국악고등학교 등의 학교에서 시조를 하는 학생들을 뽑아 육성하고 시조를 배워 대학을 갈 수 있는 제도만 마련된다면 안정적인 전승자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시조창 경연대회에 입

상할 수 있도록 시조경창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교육감상을 수여하는 등의 제도화가 필요합니다.

두번째로, 안정적인 전승의 맥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능보유자의 활동에 대한 전승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

교통비도 안되는 지금의 전승지원금으로는 내포제시조에 능보유자가 전수활동을 활발히 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포제시조의 대중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조교육 프로그램이 처음엔 힘들 수도 있으나, 지속적으로 교육을 한다면 시조만의 독특한 느낌의 미학으로 학생들의 정서함양과 태도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민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녹아있는 우리의 전통문화인 내포제시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3

**시조동호인, 후배 시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충남통합시우회
회장 이 규 환

시조동호인, 후배 시조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이 규 환(충남통합시우회 회장)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세월 앞에 인간들의 정신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다. 그 혼이야말로 인간세계를 지탱하고 있는 원동력이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보니 인생의 회한이 많이 남는다. 이제 인생을 관조하는 시점에서 시조 후배들에게 그동안의 철학을 담아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혈기 왕성할 때는 몰랐던, 느끼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시조를 시작하려거든 빠를수록 좋다. 시조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조를 부를 때 복식호흡을 하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실 때(들숨) 좋은 공기도 같이 뱃속으로 들어가고 숨을 내뿜을 때(날숨) 몸에 해로운 이산화탄소도 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건강에 아주 좋다.

시간이 날 때마다 시조를 불러라.
기쁠 때도 부르고 슬플 때, 화날 때도, 누구를 기다릴 때에도 부르고 무슨 일이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불러라.

시조를 부르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자신감도 넘쳐나게 되고 세상 부러울것이 없어지며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게 된다.

시조를 부르게 되면 가사를 외워야 하고 그 시조에 담긴 역사적 배경도 공부하게 되어 늘 공부하며 배우는 자세가 된다. 정서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지식도 쌓이게 되고 치매 예방에도 좋다.

혼자있어도 심심하거나 따분하지 않다. 시조는 늙은이들만 부른다는 인식을 버려라. 물론 사람의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시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학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택하여 하기 때문에 네 것이 좋다 그르다 할 수 없다. 하지만 시조는 혼자 조용히 도를 닦는 기분으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고 싶다.

시조가 느낌의 미학을 실천한다 해서 마냥 느리고 늘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다이내믹하고 역동적인 부분, 또 장르별로 다르기 때문에 남창 질음 시조처럼 호탕하며 기개가 넘치며 절제미가 돋보이는 남성적인 시조도 있다. 여창 질음 시조는 여성 특유의 낭랑하면서도 사랑을 갈구하는 듯한 어조와 기다림, 절제미가 돋보이는 시조이다.

그런 시조를 복식호흡을 써서 부르다 보면 십 년 묵은 체

증이 싹 내려가는 기분, 운동을 하고 느끼는 후련함이 싹 올라온다. 그런 맛에 시조를 하는지도 모르겠다.

시조는 연습도 실전처럼 불려라. 깊게 들이마시고 깊게 내뿜어라. 자신있게 당당하게 불려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조창의 멋진 역동적인 창법에 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맑고, 한가로워야 하며, 길면서 속이 차야 하고, 그러면서도 처지지 않도록 높고, 가볍게 떠야 하고, 멀리까지 도달해야 하는 자연지세(自然之勢)를 그려내야 명창의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시조를 즐겨 부르는 사람이 많고, 부분적으로는 멋진 표현을 하는 창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지만 위의 종합적인 표현을 함축하고 있는 창자는 흔치가 않은 것이다. 이해구 박사의 《시조감상법》을 보면 재미있는 구절을 발견하게 된다.

“악보상으로는 간단하여 보이지만 시조처럼 시비가 많은 것도 없다. 원래 시조에는 명창이 없다 하지만, 유명하다는 갑(甲)이 방송한 후에는 을(乙)이 그것을 비난하고, 을(乙)이 하고 나면 또 병(丙)이 냉소하여 명창의 표준을 종잡을 수 없었다.

또 <경관(경제)시조>는 지름시조나 들을까, 그 평시조는 노랑목을 써서 듣기 싫다는 사람도 있고, <내포제시조>는 단가제(短歌制)라고 깎는 사람도 있고, 전라도 시조는 사

설시조를 치고 평시조는 안친다는 사람도 있고, <영판 평시조>가 깨끗하고 속 깊고 구성져서 평시조는 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원 영판>은 너무 뻗뻗하여 경판을 섞은 <반 영판>이라야 듣기 좋다는 사람도 있어 각각 지방에 따라서 평가가 다르다” <이하생략>

암튼 시조는 힘들다. 힘든 것은 아무나 따라 할 수 없다. 그것을 인내하며 이겨내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기에 더 값이 있는 노래라 생각한다.

인생을 살면서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살아보니 어영부영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게 된다. 시조 후배님들은 인생을 탕진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며 살기를 바란다.

지정토론4

내포제시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과장 강 남 식

내포제시조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강남식(충청남도 문화유산과 과장)

I. 머리말

충청남도 문화유산과장 강남식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도청에서 문화재 업무를 보고 있으면 현장의 다양한 상황과 변수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업무 상황에서 많은 고민과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전통문화가 우리 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또 그 이후로도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해 많은 분의 노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오늘 발표해주신 내포제시조 또한 우리 충청, 충남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로 내포 지역이 서울, 경기문화와 호남 문화의 중간적 점이지대에 위치하면서,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받았고, 그러면서 우리 지역이 하나의 문화권으로 형성되어 여기서 내포의 소리문화, 내포제가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포 지역 소리문화 전통의 한 축이 내포제시조이며, 그 전통을 계승하고 계신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내포제시조 보유자 김연소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께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발표로 돌아와서, 제가 이해한 바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내포제시조’가 충청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리문화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어떤 노

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에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의견을 통해 내포제시조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으면 합니다.

II. ‘충남통합시우회’와 내포제시조

발표자께서 내포제시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문화유산과의 지원 검토에 앞서 발표자와 토론자분들께 질문드립니다. 내포제시조 보존 및 진흥을 위해 **저희 과에서 지원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고 어디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내포제시조보존회’와 ‘전통예술 내포제시조보존회’는 정책적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전혀 다른 성격의 단체**입니다. 한편 내포제시조보존회를 아우르는 ‘충남통합시우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단체는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충남통합시우회’가 지원의 대상이라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법적 지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등록된 단체라면 허가부서에 따라 **문화예술법인(단체)인지, 문화재 법인(단체)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남통합시우회’ 조직의 운영 현황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남통합시우회’는 부여에 본부를 두고 10개 지회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는 서산도 포함되는지요? 우리 충남도 무형문화재로 내포제시조가 각각 부여와 서산에 지정되어 있는데 시우회 조직 또한 **부여와 서산의 무형문화재 내포제**

시조를 포함한 조직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종목 내외적으로 형평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III. 내포제시조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또한 ‘충남통합시우회’의 내포제시조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유산과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그 종목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시군에서 시조경창대회를 개최해오셨는데, 그 외에 교육, 홍보사업 등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시조경창대회의 경우 각 시군에서도 지원받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외에 내포제시조의 교육 및 보급 사업에 대해서도 지회별로 고민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이에 더하여 ‘무형문화재 내포제시조’의 **전승체계 확립을 위한 계획도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포제시조 진흥을 위해 만들어진 ‘충남통합시우회’는 무형문화재 내포제시조 보존 및 진흥에도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해 내포제시조 전승체계 확립 차원에서 보유자의 순회 강습이라던가 아니면 부여군, 서산시에서 통합 강습회 개최 같은 사업 계획 구상도 필요합니다. 더하여 시군별 지회에서도 **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계획을 통해 매년 1~2명의 이수자 배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 내포제시조의 지원 또한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겠습니다.

‘넓은 의미의 내포제시조’는 ‘전통문화예술’에 포함되며 현행법상 「문화예술진흥법」과 「내포문화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내포제시조의 대중성 확보, 홍보, 교육 차원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통문화예술’로서 다양한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계획한다면 **사업 대상의 명칭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ex】 내포제시조 → 시조, 시조문화, 내포문화).

‘좁은 의미의 내포제시조’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으로 전형성 유지와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위해 현행법상 「무형문화재법」,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조례」에 근거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나, **그 지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IV.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내포제시조 관련 현황

저희 문화유산과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내포제시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제시조는 지역에 따라 부여의 (아랫)내포제, 서산의 (윗)내포제로 구분되어 지정되었으며 **부여의 김연소 보유자(2010.07.30.)**, **서산의 박선웅 보유자(2014.03.10.)**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포제시조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해 보유자에게 전승지

원금으로 매월 120만원, 공개행사비로 매년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등 문화재청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에서 언급하신 ‘모니터링 및 기록·연구’ 또한 문화유산과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은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내포제시조’ 기록도서를 2017년에 발간하였고, 모니터링 조사는 2021년에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윗)내포제시조’를 대상으로 영상기록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문화재 정기조사’를 5년마다 시행하여 충청남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포제시조’에 대해서도 2024년에 정기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V. 맺음말

이처럼 저희 문화유산과에서는 지역의 무형 문화유산이며, 무형문화재인 ‘내포제시조’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의 한계로 인해 ‘내포제시조’를 비롯한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55개 종목의 다양한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보존회 차원에서도 활동단체의 제도권화, 매년 일정 규모의 사업 계획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추후에도 무형문화재 진흥에 협력할 사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지정토론5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과장 이 성 일

